

5·18민주화운동 참여자의 80년 5월 이후 삶과 증언치료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김 문 선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강 문 민 서[†]

광주트라우마센터

본 연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실시한 증언치료를 통해 국가폭력의 후유증 실태와 치유의 의미를 탐색한 연구이다. 5·18을 개인에게 파국적인 영향을 미친 ‘트라우마’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후유증이 당시 참여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0년 5월에 시민군으로 참여하고 이후 고문과 구속·수감 등을 경험한 당사자 4명이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증언치료에서 진술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증언치료 경험 및 그 과정에서 보여준 청중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치유과정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19개의 주제에서 7개의 중심의미가 도출되었다. 트라우마의 후유증과 관련한 중심의미는 ‘반복되는 고통’, ‘사회·경제적 피해’, ‘고립 및 단절’, ‘고통의 세대 전이’ 등 4개로 나타났고, 치유의 경험은 ‘안전’, ‘연결을 통한 치유’, ‘산자로서 의무’ 등 3개의 중심의미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특징을 살펴보고, 치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5·18민주화운동, 트라우마, 증언치료, 고문

[†] 교신저자 : 강문민서, 광주트라우마센터, (61964)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E-mail : minseo33@gmail.com

서론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어 낸 원동력이자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무자비한 학살과 부당한 공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과 항거, 그리고 죽음을 무릅쓴 희생은 이후 산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어져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어냈다. 개별 사건으로서 5월 문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이라는 5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배상과 명예회복이 실현되는 등의 해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4년 5·18관련자 7명이 자살하면서 모범적으로 해결된 듯 보였던 5·18은 사회적 의제가 아닌 개인이 겪는 정신적인 후유증이나 심리적 고통으로 우리 앞에 다시 소환되었다. 이후 5·18이 개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trauma, 외상)로 재조명되면서 관련자들의 정신건강 및 치유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외상 사건(traumatic event)이란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성적인 폭력 등 개인에게 심대한 충격을 주는 다양한 사건을 의미한다. 외상 경험은 개인이 실제로 겪거나 그러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일어났음을 알게 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정의한다. PTSD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 침투 증상(intrusion symptoms)과 회피, 외상 사건과 관련한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현저한 변화 등 네 가지 유형의 증상이 1개월 이상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침투 증상은 외상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나 감정이 자꾸 의식에 침투하여 재경험 되는 것을 말한다. 즉, 과거가 현재 속으로 끊임없이 침습하는 것이다. 외상 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자꾸 떠오르거나 꿈에 나타나기도 하며, 외상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접하면, 그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 같은 착각(flashback)을 하거나 강렬한 심리적 고통이나 과도한 생리적 반응을 나타낸다. 둘째, 외상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한다. 외상 사건과 관련된 기억, 생각, 감정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외상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피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이나 장소, 외상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자극이나 단서를 회피하려고 한다. 셋째, 외상 사건과 관련된 인지와 감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외상 사건의 주요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신 및 타인,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나타낸다. 외상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왜곡된 인지를 통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포, 분노, 죄책감 등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빠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만족, 사랑 등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과민하고 주의집중을 못하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폭발하는 등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APA, 2013).

5·18기념재단(2006)에 따르면 5·18유공자와 가족들의 41.6%가 PTSD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9.5%가 중간 정도 이상의 PTSD를 경험하고 있었다. 부상자, 구속자, 유족 등 5·18유공자들로 대상자를 한정했을 경우 가벼운 PTSD 이상은 55.8%였고, 중간 이상은 40.1%에 달했다. 5·18과 같은

단일 사건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한홍구, 강은수, 최현정, 오하린, 2012). 이러한 연구들은 5·18을 트라우마로 바라보고 PTSD라는 의학적 진단을 내림으로써 당사자들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는 기여했다. 그러나 PTSD는 단일한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어 5·18과 같이 외상 사건 이후 계속된 재 외상 속에서 생존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증상의 변화무쌍한 표현과 속박 속에서 발생하는 성격의 뿌리 깊은 변형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여 Herman (1997/2012)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트라우마에 뒤따르는 증후군에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전문가들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상가들 또한 단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진단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18 관련자들이 경험한 80년 5월 트라우마와 이후 이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들의 후유증을 PTSD라는 단일한 진단으로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5·18은 개인이 겪은 단일한 트라우마 사건이 아니라 광주라는 지역 공동체가 함께 당한 집단 트라우마이며, 특히 폭력의 가해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였다는 점에서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사람, 자기, 세계 등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위태롭게 만든다. 또한 가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낙인과 격리 정책은 재 트라우마가 되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고통을 안겨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강압적인 통제를 오랫동안 받게 될 경우 대인관계와 정체성의 변형이 깊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5·18과 같은 트라우마 사건은, 그와 같은 폭력이 자행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고 그 사회적 모순성과 폭력성을 공동체가 기억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한홍구 등, 2012).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이와 같은 정치·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공동체의 지지와 사회적 정의를 확립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치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안녕과 심리장애의 감소에 기여하는데 이는 주위 사람들의 지지가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Haden, Scarpa, Jones & Ollendick, 2007). 이런 결과는 강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보고되었다(Fairbank, Schlenger, Caddell, & Woods, 1993). 또한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재향군인들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았고, 재향군인들 중에서도 전쟁 이후 사회적 네트워크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수준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Stretch, 1985). 특히 국가에 의한 폭력의 경우 가해자인 국가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고립을 유도하고 공동체적 지지를 단절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가 이들의 치유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편, 5·18관련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오수성, 신현균, 2008; 오수성, 신현균, 조용범, 2006; 5·18기념재단, 2006, 2008)는 외상 사건으로부터 이 십 여년이 지났음에도 관련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심각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준다. 이들의 치유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진행(5·18기념재단, 2007)되고,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사회재활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클리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치유 작업은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흐른 2012년 광주트라우마센터¹⁾(이하 ‘센터’라 함)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센터에서는 이들에 대한 치유 작업 중 하나로 증언치료를 진행하였다. 증언치료는 개인의 고통을 공공 및 정치적인 분야로 가져오려는 노력으로(Agger & Fernandez, 2013) 현재 인도, 스리랑카, 필리핀 등에서 심리치료 도구이자 정치적 억압에 대항하는 활동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문 생존자나 난민들을 대상으로 증언치료를 실시한 결과 많은 효과를 보였다. 보스니아 난민을 대상으로 증언치료를 시행하여 PTSD와 우울 증상이 감소하였고(Stevan, Alma, Ivan & Robert, 1998), 스리랑카의 고문 생존자에게서는 심리사회적 기능이 향상되었다(Puvimanasinghe & Price, 2010). 캄보디아에 맞게 적용된 증언치료(불교 의식 포함)는 크메르 루즈 생존자와 난민 신청자들의 PTSD와 불안, 우울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Chhim, 2013).

1) 광주트라우마센터는 2012년 10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고문·국가폭력생존자와 가족 등을 치유하기 위해 개소하였으며, 현재 광주광역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http://tnt.gwangju.go.kr>

본 연구에서는 센터에서 5·18관련자들을 대상으로 5·18트라우마가 이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기존 연구는 5·18관련자들의 트라우마 후유증이 어떠한지 양적 수치로 보여주었을 뿐, 사건의 경험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후유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5·18 참여 경험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를 트라우마 후유증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을 치유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고 치유적 체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센터에서 경험한 증언치료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 기술을 통해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설명을 추구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했다. 연구결과는 외상 경험의 피해자들이 보이는 만성적인 문제를 규명하고 이해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국가폭력과 그 외 다양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치료적 개입이 유용한지 공동체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5·18트라우마가 참여 당사자들의 삶에 미친 영향 및 증언치료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주는 의미와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이데이(My Day)’라는 증언치료에 주인공으로 참여한 자들 중 80년 5월 고문·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	당시 연령	5·18 당시 역할	현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1	20세	시민군	57세	배우자, 2남 1녀	무학	일용직
2	25세	헌혈시민 후송	62세	배우자, 4녀	고졸	경비
3	31세	무기 조달	68세	배우자, 1남 2녀	중등 중퇴	무직
4	25세	시민군	62세	이혼, 1녀	초등 중퇴	무직

수감 등을 경험하고, 본 연구에 동의한 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80년 5월 이십대 초반에서 삼십대 초반의 청년들로 공수부대가 보여준 폭력에 대한 분노로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체포되어 고문과 구금을 경험하였다. 삼십여 년의 세월이 흘러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이들은 현재 오십대 후반과 육십 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다. 증언치료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외상 경험을 이야기해야 하므로 말하고자 하는 용기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마이데이 전에 집단상담과 사진치유 등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센터 직원들과 치유적 동맹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다. 참여자들의 마이데이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한 연구 참여자 당 사전 면담에서 사후 면담까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 1

57세 무학에 2남 1녀를 둔 기혼 남성이다. 연구 참여자는 1980년 5월 당시 20세로 과자 공장에 다니며 현재의 부인과 처가에서 동거 중이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산다리 근처에서 시위대와 함께 돌을 던지며 시위에 동참하였고, 이후 전남대 앞에서 공수부대가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것을 목격한 후 시민군으로 합류하였다. 항쟁 기간 내내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5월 27일 도청에서 계엄군에 붙잡혀 상무대로 끌려가 고문당한 후 40여일 만에 풀려났다. 2012년 11월 센터에서 10회의 집단상담을 시작으로, 8회의 집단 꿈 투사 작업, 정형도수 물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함께 했다.

연구 참여자 2

62세 고졸에 4녀를 둔 기혼 남성이다. 80년 5월 당시 울산에서 용접사로 일을 하다 누나 결혼식 참석차 광주에 왔다. 5월 18일 울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터미널로 가던 중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껴 시위에 참여했다. 이후 지휘본부 차를 운전하며 부상자들과 헌혈할 시민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일을 담당했다. 지명 수배되어 쫓기다가 9월에 자수하여 상무대에서 일주일, 서부 경찰서에서 한 달 동안 고문을 받고 풀려났다. 센터에서 개인상담과 사진치유 프로그램,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참여했다.

연구 참여자 3

68세로 중학교를 중퇴하였으며, 1남 2녀를 둔 기혼 남성이다. 80년 5월 당시 화순에 살던 연구 참여자는 공수부대에 의해 광주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며 무기를 조달했다. 24일 광주로 들어가지 못해 화순에 있다가 7월 1일 화순경찰서로 끌려가 한 달 동안 고문을 받았고, 이후 상무대 영창에서 3개월 간 조사와 고문을 받았다. 12년형을 선고받고 1981년 4월 풀려났으며 출소 후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 싸웠다. 센터에서 개인상담, 정형도수 물리치료에 함께 했다.

연구 참여자 4

62세로 초등학교를 중퇴하였으며 1녀를 둔 이혼 남성이다. 당시 25세였던 연구 참여자는 5월 18일 금남로에서 군인이 젊은이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것을 보고 시위에 참여했다.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하자 총을 들었으며, 26일 도청에서 계엄군이 들어오니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도청을 빠져나왔다. 형사들을 피해 도망 다니다 80년 7월 자수하여 경찰서에서 한 달, 이후 상무대에서 3개월 동안 조사와 고문을 받았다. 실형 5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해 말에 출소했다. 센터에서 집단상담, 정형도수 물리치료, 상처입은 치유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증언치료 - 마이데이(My Day)

1970년대 칠레에서 비롯된 증언은 정권의 억압에 대한 증거 자료 및 치료 도구로 활용되었다. 치료적 근거로서 대화는 긴장을 풀게 하고 고문 가해자들의 행동에 대한 복수와 외상적 경험을 새롭게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기회가 된다. 또한 공개적으로 자신의 투쟁과 고통을 이야기했을 때 증언자가 받을 수 있는 인지도와 존경심은 증언자에게 매우 큰 지지가 되며 증언자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정체

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Allen & Mia, 2003/2011). 증언은 치료자와 내담자 모두의 문화적 맥락에서 보편적인 치유와 정화 의식이며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심리치료 도구이자 정치적 억압에 대항하는 연대활동이다(Herman, 1997/2012).

마이데이는 증언치료의 일환으로, 2010년 재단법인 진실의힘²⁾에서 고문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안한 치유 프로그램이다. 센터에서는 상담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9월부터 마이데이를 시작하였다. 마이데이는 대상자 선정과 사전 면담, 마이데이 본 프로그램, 사후 면담까지 하나의 커다란 의식으로 진행된다. 주인공 선정은 까다롭고 세심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외상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이 재경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에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안전감이 형성되어 있으며 외상을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었다. 또한 증언을 통해 외상 경험을 회복과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자로 선정했다. 이후 주인공은 마이데이에서 이야기를 이끄는 진행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사전 면담을 1~2회 진행했다. 사전 면담을 통해 진행자는 주인공과 신뢰를 형성하고, 외상 경험이 주인공의 삶에 미친 영향을 듣고 다루어야 할 주제를 검토했다.

마이데이 청중은 크게 두 그룹으로 구성되는 데 먼저 연구 참여자의 가족이나 투쟁을

2) 진실의힘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들이 재심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국가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의 일부를 출연하여 만든 재단이다. <http://www.truthfoundation.or.kr>

함께 했던 동지, 같은 단체 회원, 같은 프로그램을 수료했던 동료 등을 참가시켰다. 이들은 연구 참여자와의 일상적인 정서적 지지체계 강화를 위해 함께 했다. 그리고 일반 시민과 학생, 종교인, 자원 활동가 등으로 또 다른 그룹을 형성했는데, 이들은 연구 참여자의 증언을 집중해서 듣고 정서적으로 상호작용 한다.

마이테이 프로그램은 평일 저녁 무각사 템플스테이 방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다. 먼저 오프닝으로 센터 담당자가 마이테이 시작을 알리고 모든 참석자들을 각각 소개한다. 진행자를 마지막에 소개하는데, 진행자는 인사말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치유적 존재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오프닝 마지막 순서로 그 날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3~4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 상영한다.

주인공의 증언과 청중과의 공유는 100여분 정도 진행되는데 먼저 진행자가 주인공에게 동영상을 본 소감과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묻는다. 사전 면담을 진행했고 주인공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오기 때문에 진행자가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그리고 주인공의 이야기가 객관적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내적 경험에 머물 수 있을 정도로 개입한다. 전체 시간 중 20여분 가량은 주인공과 청중과의 정서적 공유 시간이다. 주인공의 증언 중간 즈음에 다른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유사한 경험을 한 동료들의 소감과 느낌은 주인공에게 안정감을 주고 증언을 계속하도록 촉매 역할을 한다. 주인공의 이야기가 마무리 될 즈음 청중들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는 지 내적 경험을 확인한다. 참석자들이 증언을 들으며 느낀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주인공과 마음을 담은 포옹이나 악수를

주고받는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청중들의 반응을 들으며 무엇을 느꼈는지 표현하고 청중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마무리 한다.

증언이 끝나면 용기 내어 말해 준 주인공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전체 참석자가 기념사진을 찍는다. 청중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문과 함께 주인공에게 하지 못한 말을 글로 남긴다.

마이테이가 끝난 2~3주 후 주인공과 증언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감정이 어땠는지, 이후 변화 등에 대해 질문하는 사후 면담을 진행하고, 마이테이 때 찍은 사진과 참석자들이 남긴 말을 전달한다.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사전 면담과 마이테이 당일의 증언,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진행한 사후 면담이다. 각 면담 시 마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했고 참여자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행동과 태도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면담 자료뿐 아니라 연구 참여자가 그동안 참여했던 상담이나 프로그램과 그 안에서 만들었던 작품, 담당 직원의 이야기 등과 같은 자료들 또한 연구 현상을 깊이 이해하는데 참고했다. 증언치료 전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힘들어 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격려하며 지지했다. 또한 괄호치기(Bracking)를 통해 현상에 대한 선이해와 편견들이 자료의 해석 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메모하였다.

분석

본 연구에서는 5·18관련자들의 80년 5월

이후의 삶과 증언치료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했다. 현상학은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설명을 추구하는 접근법으로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다. Giorgi는 연구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방법은 경험에 대한 본질적 구조에 집중하고 참여자의 공통적 속성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5·18관련자들의 삶과 증언치료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Giorgi(1985)의 4단계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는 것으로 녹음된 자료를 필사하여 여러 번 읽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였다. 두 번째, 연구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단위를 구분해내고자 다시 필사된 내용을 읽으며 연구 참여자의 말로 규정된 의미단위를 추출하였다. 세 번째,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하는 것으로 의미단위를 반성과정과 상상력을 통해 주제를 규정하였다. 네 번째, 변형된 의미단위를 연구 현상에 대한 일반적 구조적 기술로 통합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상황적 구조적 진술을 기술한 후 일반적 구조 진술로 통합하였다.

연구의 엄격성 및 타당성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의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근거로 진행하였다. 사실적 가치는 참여자의 지각과 경험의 진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기술 내용이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 1은 연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길 바란다고하였고, 연구 참여자 4는 상무대에서의 고문과 출소 이후 받았던 지속적인 감시가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연구 참여자 2와 3은 본인의 경험이 잘 담겼다고 짧게 답했다. 적용성은 연구 이외의 맥락에서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 외에 센터 이용자 중 유사한 경험을 했던 2명의 5·18관련자에게 연구 결과가 본인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지 묻고 기존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한 사람은 분석의 전반적인 내용이 본인의 경험과 유사하다면서, 특히 경제적 빈곤과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들려주었다. 다른 한 명은 정부의 감시와 시민들의 5·18에 대한 비난이 가장 괴롭고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아직도 5·18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강은숙(2011)은 80년 5월 기동타격대 다섯 명의 구술을 통해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정부의 감시와 탄압, 가난과 가족의 희생, 5·18의 금전화·정치화로 인한 시민들의 외면, 불안정한 노후 등이 구술자들의 공통 경험으로 기술되었다. 일관성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분석한 자료를 임상심리학 박사 과정에 있는 동료와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논문을 쓰고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에게 감수 받아 수정과 보완을 거쳤다.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 모든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연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가설, 연구와 관련된 생각 등을 기록하여 비교,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

했다.

연구자는 질적연구에 대해 잘 숙지하고 이해해야 하며 이것이 자료의 이해와 분석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는 학회 및 협회에서 개최한 질적연구와 관련된 워크숍과 교육에 참석하였고 질적연구모임에 꾸준히 참여했다. 다른 연구자는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고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에서 질적 연구물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이 질적연구에 대한 이해와 민감도를 높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센터 직원으로 집단상담과 예술치유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오랜 시간 함께 해왔다. 연구 참여자들과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들을 관찰했고, 센터 내에서 5·18관련자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해가 높았으며 특정 기간에 수집된 자료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등 분석의 타당성을 높였다. 그리고 상담심리학 박사 과정에 있는 센터 치유팀원과 가족치료사인 재활팀장이 자료를 분석,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함으로써 자료 분석에 신뢰성을 높였다.

결 과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Giorgi(1985)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134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의미단위들을 포함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1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들의 상관관계를 통합하여 7개의 중심의미로 축약하였으며, 주제의 핵심과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결과 제시를 위한 자료로 인용하였

다. 그리고 모든 의미단위들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을 일관된 구조로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결과는 크게 5·18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과 치유 경험으로 구분하였는데, 후유증은 4개의 중심의미로, 치유 경험은 3개의 중심의미로 나타났다

5·18 트라우마 후유증

80년 5월의 경험으로 인한 후유증은 ‘반복되는 고통’, ‘사회·경제적 어려움’, ‘고립 및 단절’, ‘고통의 세대 전이’ 등 4개의 중심의미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연구 결과는 표 2와 같다.

중심의미 : 반복되는 고통

지속되는 침습적 기억과 재현. 연구 참여자들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외상 경험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침투하는 기억 때문에 고통 받고 있었다. 사건과 관련된 유사한 단서나 자극에 노출되면 어김없이 80년 5월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그때의 생생함과 정서적 강렬함을 느꼈다. 참자는 동안에도 외상과 관련된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몽을 꾸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생하게 더 떠오르고. 함께 그 때 그 일이 내 눈앞에 딱 떠오르고. 장면이 영화관 그런 식으로 딱 딱...(연구 참여자 1)

도망가는 꿈이나 고문당하는 꿈꾸고. 자다가 느닷없이 악을 써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죽일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악을 쓰다보면 꿈이에요.(연구 참여자 4)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5·18트라우마 후유증

중심의미	주제	의미단위	비고
반복되는 고통	지속되는 침습적 기억과 재현	- 그때 그 일이 내 눈 앞에 생생하게 떠오름 - 도망가거나 고문당하는 꿈을 꿈	
	회피	- 집사람이랑, 누구한테도 5·18에 대해 말하지 않음 - 경찰들, 군인들을 안 보려고 노력함	
	과각성	- 이사를 열여덟번이나 다님. 쫓기는 기분이 듦 - 깜짝깜짝 놀라고 크락션만 울려도 주저앉아버림 - 악몽을 꾸고, 자다가 별떡벌떡 일어나거나 탁자를 차 버림	
	신체적 고통	- 허리가 아파 침 맞고 사리돈 먹고, 노동력을 잃어버림 - 고통이 심할 때나 비가 올 때 진통제나 술을 많이 먹음 - 귀에서 귀뚜라미, 매미 우는 소리 들려 고통스러움	
사회·경제적 어려움	취업 제한	- 정보과에서 항시 지키고 따라다녀 직업을 못 가짐 -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경계하여 어디로 들어갈 수 없음 - 시험에 합격하나 신원조회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떨어짐	
	직업적 기능 어려움	- 허리가 아파 오래 앉거나 서 있지 못해 경비도 못함 - 맞아서 골병이 들어 무슨 일을 할 수 없음	
고립 및 단절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	- 그것이 끝나고 감시란 게 있었음 - 수사관을 붙이고 외국도 못 나가게 하고 직장도 못 나가게 함 - 형사들이 마당 앞에 서 있고, 고위관료가 온다하면 주변을 에워쌌	
	5월에 대한 왜곡과 비난	- 광주시민이 5월을 욕하면 피가 거꾸로 설 때가 있음 - 일반 시민들은 정부에서 그만 좀 뜯어먹으라고 함	
	말할 수 없음	- 누구한테도, 5·18에 관련됐다는 얘기를 안 함 - (고문당한 이야기하면) 허풍 떠다고 해서 나 혼자 소화시킴	
	손상된 기본신뢰	- 숨는 것이 좋고 사람 자체가 싫음 - 본인이 아니면 그 고통을 모름	
	가족에게로 향한 폭력	- 와이프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때리고, 그러고 나서 후회함 - 애들한테 화풀이를, 군대식으로 막 벌을 줘 버림	
고통의 세대 전이	가장으로서 역할 소홀	- 진상규명 외 아무것도 생각 안함 - 사회가 싫어 낚시가방 메고 6개월씩 나가버림 - 아빠로서 가정에 충실히 못했다는 무거움, 죄책감	
	경제적 빈곤	- 큰애 이사나 손주 백일잔치 간다 해 놓고 돈이 없어 안 감 - 살아가는 중 제일 힘든 것이 생활고임 - 일을 못하니 가장으로서 체면도 그렇고 애들 보기 부끄러움	

회피. 연구 참여자들은 80년 5월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고통을 느껴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피하거나 참여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또한 당시의 가해자를 연상시키는 군인, 경찰 등이 보이면 숨거나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했다.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랑 5월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떠올리기 싫으니까... 누구한테도 제가 5·18에 관련됐다는 소리를 안했었죠.(연구 참여자 2)

경찰들이 음주 단속 같은 것도 하면 그것도 피하고 싶어요. 경찰들하고 별로 안 마주치고 싶고, 그때 일들이 딱딱 떠올라 부러요. 군인들도 안 불라고 노력하거든요.(연구 참여자 1)

과각성.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불안과 울화, 분노, 감정 격변과 같은 감정 조절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80년 5월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단서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며 쉽게 놀라고, 신체는 항상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각성의 상승은 깨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잠자는 도중에도 지속되어 불면과 수면장애로 이어졌다.

이사를 열여덟 번인가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가면 뿌리 내리질 못해요. 빨리 떠야 돼요. 판데로. 강게 불안, 쫓기는 기분이 들었어요.(연구 참여자 1)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고. 뒤에서 크라션만 눌러도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버릴 때도 있으니까.(연구 참여자 3)

악몽 같은 거는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꾸고 그랬어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탁자를 차버리고, 물그릇을 차버려서 엎어지고...(연구 참여자 4)

신체적 고통. 연구 참여자 모두 80년 5월 당시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고문으로 인해 심각한 통증에 시달렸으며, 현재까지 청각 장애, 편마비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었다. 80년 당시의 신체적 고통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노동이나 직장 생활 등 정상적인 기능을 어렵게 만들었다. 고통을 잊기 위해 약물과 술에 의존하면서 전반적인 신체 건강의 악화를 가져왔다.

허리가 아파 침도 맞고 사리돈 먹고... 통증 때문에 그 때 당년도 노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죠.(연구 참여자 2)

고통이 심할 때나, 비가 오고 뿔할 때는 굉장히 몸이 안 좋거든요. 우리들이 진통제 아니면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연구 참여자 3)

지금 귀에서 엄청 귀뚜라미, 매미가 우는 소리가. 그것이 어쩔 땐 골이 울려버려요. 아~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지금도 엄청 울고 있거든요. 진짜 죽겠어요.(연구 참여자 1)

중심의미 : 사회·경제적 어려움

취업 제한. 연구 참여자들은 경찰들의 일상화된 감시, 80년 5월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한 불이익 등으로 직장을 갖기 어려웠다. 어렵사리 시험과 면접을 통과하더라도 신원조

회에서 떨어져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하기도 했다.

우리가 직업을 갖고 싶어도 못 갖잖아요. 경찰서 정보과에서 항시 지키고 있고, 따라다니고.(연구 참여자 3)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거여. 내가 과연 너를 써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나는 어디로 들어갈 수 없어.(연구 참여자 4)

각종 건설 회사들 대립이나 동아나 쌍용 같은데 서류를 넣었거든요. 시험에는 합격이 되요. 마지막 신원조회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5·18, 그걸로 인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연구 참여자 2)

직업적 기능 어려움. 고문으로 부상당한 몸과 끊이지 않는 통증, 저하된 신체 기능으로 경제적 활동이 곤란했다. 젊었을 때는 진통제와 술로 버텼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 노화에 따른 감퇴 등으로 인해 기능이 더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경비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허리가 아파서 못하고. 오래 앉거나 오래 서 있거나를 못하니까.(연구 참여자 2)

써주지도 않고 써준다고 해도 추운디서 참나무 동발이나 찌르고 그런 것을 시킨디, 누가 맞아서 골병든 사람들이 무슨 일 하겠습니까. 어디 직장에는 들어가도 못했죠.(연구 참여자 3)

중심의미 : 고립 및 단절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 연구 참여자들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세상이라는 더 큰 감옥에 갇혔다. 전두환 정권 내내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미행이 지속되었고 특히 고위층의 광주 방문이 있는 날이면 원격지 격리나 자택 감금 등이 이루어졌다. 80년 5월 이후 지속된 사회적 억압은 연구 참여자들을 사회와 고립시켰다.

근데 그것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지 않았어요. 감시, 감시란 게 있었어요. 우리가 공포에 살았었어요.(연구 참여자 1)

수사관을 붙이질 말던가, 외국도 못 나가게 해, 직장도 못 나가게 해. 그게 한 8~9년. 내가 서울 가면 서울 따라오고, 당구장에서 놀면 당구장으로 따라 들어오고.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어요.(연구 참여자 4)

정보과 형사들이 항시 마당 앞에, 아침에 인나서 보면 담 건너나 마당 앞에 와서 있어요. 특히 고위관료나 광주시나 온다하면 우리 주변에 에워싸고 있고요. 그런 세월을 겪었는데 어떻게 직장에 들어가겠습니까?(연구 참여자 3)

5월에 대한 왜곡과 비난. 80년 5월 이후 전두환 정권은 피해자들에게 폭도 또는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광주사태’가 ‘5·18민주화운동’이 되었건만 여전히 종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등에서는 5·18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한다. 시민들도 5·18을 욕하고 비난하여 어디 가서 5·18관련자라는 말을 꺼내지 못한다. 외상 경험에 대한 사회

적 지지의 부재와 비난은 연구 참여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이다.

광주시민을 보면 5월을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 피가 거꾸로 설 때가 있었어요... 위로는 못할망정 욕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연구 참여자 1)

다른 데 가면 친구들이 모지리라 하지 좋게 평가를 안 하거든요. 5·18새끼들은 맨 정부에서 돈만 타간다고. 한 번 보상을 받으면 끝나거든요. 지금 6차, 7차까진가 모르겠습니다만 여섯 번을 타먹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일반시민들은. 그만 좀 정부에서 뜯어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연구 참여자 2)

말할 수 없음. 연구 참여자들은 80년 5월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전두환 정권은 진실을 왜곡했다.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은 외상 경험에 대해 점점 더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자신에게 가장 크고 충격적인 사건을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을 때 인간은 고립되고 단절된다.

누구한테도, 제가 5·18에 관련됐다는 소리를 안했었죠. 아무도 몰랐죠. 동네사람들도...(연구 참여자2)

(고문당한 이야기하면) 딴 사람들이 보면 허풍 떠한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는 식구들하고도 안 해요. 먹고 사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나 혼자 소화시키고.(연구 참여자 3)

손상된 기본 신뢰(basic trust). 고문을 당하고 국가의 학살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세상이 안전한 곳이라는 신뢰를 잃고, 완전히 버림받고 혼자라는 철저한 고립감을 경험하였다. 외상 경험 이후 가족 간의 친밀한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에 소외감과 단절감이 스며들었다. 또한 인간의 악함에 대한 혐오감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며 기피하게 되었다.

사람들 보면 같이 어울리기가 싫고, 나 혼자 홀로 있는 것이 더 낫았었어요. 언능 말해서 숨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람 자체가 싫었어요.(연구 참여자 1)

지금 사회에서, 우리 식구들한테 이야기하면 뺨이라고 하죠. 그런디 사실 그것을 느껴본 사람 외에는 몰라요. 본인 아니고는 고통을 모릅니다.(연구 참여자 3)

중심의미 : 고통의 세대전이

가족에게로 향한 폭력. 폭력과 고문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 안에서 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다. 부인과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이 상무대 영창에서 받았던 고문을 자녀에게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폭력을 휘두르고 나서 본인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어 자책했다가 또다시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집사람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었죠. 욕하는 마음에. 그걸 어디다 풀 데는 없고. 와이프가 좀 뭘 말이라도 하면 그냥 닥치는 대로 주먹이고 뭐이고 발길질. 그때 당시는, 때릴 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때

리고. 그리고 나서 또 바로 후회를 하죠.
(연구 참여자 2)

큰 애는 많이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애들한테 내가 화풀이를 한 것 같아요. 군대식으로, 벌을 막 줘 버리고...(연구 참여자 1)

가장으로서 역할 소홀. 연구 참여자들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5월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느라 가정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가족을 떠나 있거나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양육을 하지 못하고 방치했으며, 그로 인해 배우자가 가출하는 등 가족들도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집에 이틀 만에 들어오듯 하면서 최루탄 맞고 앞장 서가지고 서울 상경 투쟁이니, 진상규명 이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 안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고문당해 갖고 노동일도 못하지.(연구 참여자 3)

(술, 담배, 약의 반복) 그러다보니까 애기 엄마도 어디론가 가버리고. 연도만 8년이지 같이 붙어있는 시간은 2년이나. 사회가 싫고 그러니까 낚시가방 메고 가서 6개월씩 나가버리고...(연구 참여자 4)

아빠로서 가정에 충실히 못했다는 것, 그런 무거움, 죄책감. 군대 갔다 오면 대학 보내주겠다고 한 거 못 보내줬어요.(연구 참여자 1)

경제적 빈곤. 80년 5월 직후 연구 참여자

들의 경제적 무능은 한 세대가 흐르면서 이제 한 가정의 빈곤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육십 대 전후로 자식들의 진학 및 결혼 등 가정에서 목돈이 가장 필요한 시기의 가장임에도 본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 관계에서의 위축과 불화로 이어져 연구 참여자들은 더욱 소외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큰애가 이사했는데 “오신다 해놓고 안 오셨냐”고. 또 손주 백일잔치도 간다 해놓고 안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미안하다 그랬어요.(연구 참여자 1)

살아가는 중에 힘든 것이 제 아픔이 아니라 생활, 그것이 제일 힘듭니다.(연구 참여자 1)

올해 육십입니다만 아직 일을 해야 될 나인데 일을 못하니까 가장으로서 체면도 그렇고, 애들 보기에든 부끄럽고...(연구 참여자 2)

치유 경험

연구 참여자들이 마이데이 프로그램에서 증언 및 청중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경험한 내용은 ‘안전’, ‘연결을 통한 치유’, ‘산 자로서 의무’ 등 3개의 중심의미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연구 결과는 표 3과 같다.

중심의미 : 안전

말할 수 있음. 트라우마를 경험한 생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의 첫 단계는 안전을

표 3. 연구 참여자들의 마이테이를 통한 치유 경험

중심의미	주제	의미단위	비고
안전	말할 수 있음	- 터놓고 그때 당시 일들을 알릴 수 있다는 것 - 평상시에 못했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사회적 지지	- 가족들이 조금 알아주는 느낌 - 동지들이 위로를 해 줘서 굉장히 고마움 - 젊은 세대들이 이해를 하고 깨달았다니 고맙고 감사함	
	연결을 통한 치유	-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에 자신감이 생김 - 아무것도 해 온 것은 없지만 헛 세상 살지 않았구나 느낌 - 우리 가족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겠구나 생각함 - 우리 아버지에게 못 드렸던 말씀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듦 - 무관심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음	
	신뢰 회복	- 어디 가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김 - 알아주고, 내 말을 믿어 주니 고마움 -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은 것, 따뜻한 손과정이 흐뭇함	
산 자의 임무	증언 욕구	- 외부로 일들을 알리고 싶은 용기가 생김 - 삶을 유지해서 더 많이 진실을 알려야겠음	청중 진술
	정의 실현	-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80년 역사를 깨닫게 해주고 싶음 - 진실이 밝혀져야 함 -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정의로운 국민이 되기 바람	

확보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과 친구 등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외상 경험을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는 마이테이가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좋았던 것은 터놓고 그때 당시 일들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연구 참여자 1)

이야기가, 힘든 얘기였는데 이제 얘기가 잘 나와요.(연구 참여자 4)

중심의미 : 연결을 통한 치유
사회적 지지. 연구 참여자들은 마이테이를

통해 가족들의 이해와 동지들의 지지를 받으며 마음의 안정감을 느꼈다. 또한 함께 한 청중들의 따뜻한 시선,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받고 수용되는 느낌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가족들이)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조금 알아주는 느낌? 내 말을 듣고 이해를 하잖아요.(연구 참여자 1)

동지들이 위로의 말을 해 줄까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 얘기를 듣고 감동을 많이 샀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평

장히 고맙다...(연구 참여자 4)

젊은 세대들이 이해를 하고 깨달았다니까, 나로서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네요. 진짜 고마운 이야기예요.(연구 참여자 3)

치유적 만남. 주인공과 청중은 용기 내어 말하고 집중하여 들음으로써, 서로의 공명으로 치유적 공동체를 형성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생존자의 임무로서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듣는 이들의 지지와 상호작용을 통해 인생이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

좋았던 것은, 터놓고 그때 당시 일들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에 자심감이 생겨요.(연구 참여자 1)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도 아무것도 해온 것은 없지만, 헛 세상 살지 않았구나.(연구 참여자 3)

청중은 연구 참여자들의 증언을 주의 깊게 듣고 이에 응답함으로써 침묵의 공모를 깨고 국가폭력의 생존자들을 단절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증언이 청중의 마음과 교감함으로써 비슷한 경험과 감정이 건드려져 청중들의 마음속에서도 치유적 경험이 일어났다.

우리가 나서지 않았으면 광주는 어떻게 됐을까 그 말씀 하시는데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렀겠다, 어쩌면 우리 가족도 죽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청중 1,

광주시민)

아까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아버지한테 못 드렸던 말씀, 아버지도 저한테 말 못 한 게 많으실 거고.... 한 번이라도 마음에 있는 말을 드리고 싶다...(청중 2, 광주 시민)

무관심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한이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공감해주지 않고 무관심한 거. 그게 되게 외로우셨을 거 같다는...(청중 3, 광주 시민)

신뢰 회복. 연구 참여자들은 살아남은 자로서 역사를 증언하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자신들이 해왔던 투쟁을 청중들이 알아주고 존경을 표하니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누그러뜨리고 단절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했다.

함께 자신감이, 어디 가서도 자신감 있게 그때 있었던 일 그대로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연구 참여자 1)

그래도 알아주시구나, 제 말을 믿어 주시니까 고마워요.(연구 참여자 1)

여성분이 와서 포옹을 해주면서 힘내시고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랬을 때 굉장하... 이 세계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

한 손, 따뜻한 정이 굉장히 흐뭇했어요.(연구 참여자 4)

중심의미 : 산 자의 임무

중언 욕구. 마지막 날 도청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무거운 죄책감은 생존자를 짓눌러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살아남은 자로서 아직도 은폐되거나 축소된 5월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했다. 그래서 먼저 간 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와 진실을 알리는 것이 산 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5월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그 분들이 역사를 진심으로 들어준 것 같고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마이테이가 자주 있으면 좋지 않나. 외부로 일들을 알리고 싶은 용기가 생기더라구요.(연구 참여자 1)

내가 장애인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삶을 유지해서 더 많이 진실을 알릴 수 있으면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연구 참여자 3)

정의 실현. 연구 참여자들이 마이테이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하고 앞으로도 진실을 알리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다시는 5·18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죽은 이들의 한을 푸는 길이라 믿으며, 증언을 통해 정의롭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 증언은 연구 참여자들이 우리 사회에 남기는 역사적 기록이다.

(마이테이를 통해) 사람들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80년 그 역사를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도 있고...(연구 참여자 1)

지금도 바란 것은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어느 정도 공감이가게 해결이 되는 것을...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원하는 것뿐이 없죠.(연구 참여자 3)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지적할 수 있는 국민이 되었으면, 그러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날까지 저는 투쟁할 것을 맹세합니다.(연구 참여자 4)

일반구조적 진술

연구 참여자들은 80년 5월 시위 과정에서 수많은 죽음과 폭력을 목격하고 이후 체포되어 심각한 고문을 당했다. 고문 등의 외상 경험은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의식적으로 생생하게 떠올려지는 그날의 기억과 악몽, 일상생활에서 외상과 관련된 사소한 단서에도 쉽게 유발되는 정서·신체적 반응들, 과도한 각성과 경계 반응을 보였고 사건과 관련된 생각이나 대화 등을 회피하였으며 신체화와 각종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 받았다.

이들의 고통은 80년 5월의 외상으로부터만 비롯되지 않았다. 5월 이후 가해자인 전두환 정권 하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을 받았고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침묵해야만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빨갱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었으며 신체 통증과 장애로 직업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결국 경제적인

빈곤에 시달렸다. 공동체의 침묵과 폭도라는 손가락질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회·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고립과 단절이라는 더 큰 고통을 안겨 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분노는 가족들에게 폭력으로 표출되거나, 배우자나 아버지로서 부양 및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정 안에서조차 고립되었다. 5월에 대한 공동체의 왜곡과 비난은 연구 참여자들을 더욱 철저히 고립시켰으며 외상 경험에 대해 아예 침묵하게 만들었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느끼며 죽은 이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며 스스로를 비난했다. 그래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규명하고 5월을 알리고자 하는 증언 욕구가 강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마이데이에서의 증언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이해 받고 수용 받는 느낌을 경험하였으며 외상 경험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였다. 청중들이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사회적 투쟁을 인정하고 존경을 보냄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노력과 수많은 죽음들이 헛되지 않았음에 안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살아남은 자로서 5월을 더 많이 알려야겠다며 산자로서의 임무를 다짐했다. 이들이 살아남아 증언하는 목적은 80년 5월의 진실을 알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다시는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논 의

본 연구는 5·18관련자들의 증언치료 경험을 통해 80년 5월이 이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80년 5월의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트라우마의 후유증으로서 심리·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가정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외와 단절 등 그들의 삶 전체에 걸쳐 현재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사자들이 겪는 후유증은 빈곤과 폭력 등으로 가족 내 세대전이 되고 있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80년 5월이라는 1차적 외상 사건의 후유증으로 생생하게 떠오르는 침습적인 외상 기억과 악몽, 외상과 관련된 단서에 쉽게 유발되는 심리·신체적 반응의 활성화와 과도한 경계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회피, 신체화 및 신체질병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고문피해자의 76.5%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43.2%는 신체화 증상, 27.7%는 대인예민성, 25.4%는 우울 증상, 31.9%는 불안 증상, 27.7%는 적대감 증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이런 심리·정신적인 후유증과 아울러 현재 오십대 후반에서 육십 대에 이른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커다란 고통으로 호소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80년 5월 이후 이어진 감시와 탄압, 고문 후유증, 진상 규명 투쟁 등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려웠으며 그런 상황은 현재 고스란히 한 집안의 빈곤으로 대물림 되고 있었다. 경제적 무능 및 생활고로 인한 갈등은 가족 및 친척들 간의 불화로 이어지고, 이는 정서적 지지체계의 와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증언으로 살펴보건대,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력, 경제적 무능력, 가정 소홀, 트라우

마 후유증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5·18기념재단(200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자 가족 증언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직계 가족 27명 중 48%인 13명이 심각한 복합적 정신병리를 보였는데 주요 장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우울장애, 알코올의존 장애, 품행장애와 부모자녀 관계문제, 경계선 성격장애에 해당되었다. 5·18민주화운동 참여 경험이 연구 참여자들 개인을 넘어 세대를 통해 전달되고 가족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치유 작업이 심리·정신적인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재활과 복지 등 총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들에 대한 개입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고립과 단절은, 진실을 말하는 주인공과 이를 경청하는 공동체 이웃들 간의 ‘연결’을 통해 극복된다. Herman(1997/2012)은 트라우마의 회복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생존자는 안전을 확립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억하고 애도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상과 다시 연결되어 간다. 자신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안에 있다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트라우마 경험자들에게 외상 경험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고통 속에 혼자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덴마크의 저항시인이었던 할프단 라스무센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는 시(詩)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고문 가해자도 다시 일어설 수 없이 망가져 버린 육신도 아니라며,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자비하고 무감각한 세상의 눈먼 냉담함이다’라고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은 오랜 수감생활이나 사회 경

제적 고통보다 주변 사람이나 가족의 외면과 배척, 고문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적 지지 부재가 가장 커다란 고통이었다고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사회적 지지는 단지 사람이 존재하기만 하는 사회적 상황이 아닌 ‘상호 의존’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와 나의 말을 제대로 보고 듣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안정되고 치유 받고 성장하려면, 지금 자신이 안전하다는 기분을 강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Kolk, 2015/2016). 연구 참여자들은 청중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고 믿어주며 자신의 고통에 함께 눈물 흘리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에서 자신이 온전히 이해받고 수용 받는 느낌을 가졌다. 청중들 또한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당신들의 삶이 있어 내가 있다, 잊고 살았던 것이 미안하다, 용기 내어 말해 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5·18을 기억하겠다고, 역사의 진실을 마음 속 깊이 새기겠다고 약속했다. 마이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이웃들과의 연결과 관계성의 회복, 이것이야말로 트라우마를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길이다. 공동체의 경청과 기억, 사회적 지지가 있어야만 피해자 개인의 치유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마이데이에서의 증언을 통해 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안도했는데, 이처럼 증언은 피해자의 죄책감과 무력감, 패배감을 씻어주고 트라우마의 ‘피해자’를 ‘생존자’로 전환시킨다. Agger와 Jensen(1990)은 증언이 치유의 의례로서 보편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증언은 고해와 영성이라는

사적 차원과, 법적이고 정치적인 공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증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 두 차원의 의미가 연결되어 개인적인 경험에 새롭고 커다란 차원이 열린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은 80년 5월 26일 새벽 도청을 빠져 나왔다는 것, 동료들은 죽었는데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다. “그들 대신,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아우슈비츠 생존자 Levi(1986/2014)는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아직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증언이 생존의 특권을, 그리고 큰 문제없이 여러 해를 사는 특권을 내게 가져다 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나를 괴롭힌다.”고 했다. 살아남았다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쉽게 떨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자기 비난의 경험, 자신이 쓰레기 같고 더럽고 악하다는 느낌은 많은 고문 생존자들이 깊어지게 되는 생존 증후군의 핵심 특징들로 생존자 죄책감이라는 경험을 구성한다(Danieli, 1988). 마이테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오랜 시간의 생존자로서 죄책감과 무력감을 깨뜨렸으며 살아남은 자로서 역사의 진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증언하며, 듣는 이들이 이를 기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같은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신의 증언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역사를 알고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며 고마움을 느꼈다. 증언은 피해자의 개인적 치유를 넘어 생존자가 살아서 해야 할 임무와 역할이 되는 것이다. 증언이 피해자의 개인적인 하소연을 넘어 정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존자의 임무가 될 때 비로소 트라우마는 구원된다

(Herman, 1997/2012). 연구 참여자들은 증언을 통해 트라우마 경험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렇듯 트라우마 경험자들에게 증언은 무력감과 패배감을 깨뜨리고 피해자라는 정체성에서 생존자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문요한, 2016) 자신들의 외상 경험이 우리 사회에 반복되지 않도록 산자로서의 공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연구의 의의와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5·18관련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질적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80년 5월 트라우마의 후유증을 직접 전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들의 치유 과정을 통해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줌으로써 공동체와 시민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는 세월호 참사, 연평도 사건 등 커다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공동체의 치유를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외상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아나아졌다고, 그들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치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5·18과 같은 외상 사건이 개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 사회적 의미가 부여될 때 그 개인은 트라우마 ‘너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심리적·정신적·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어 이들의 재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고문·국가폭력 트라우마의 후유증이 세대 전이되고 있으므로 가족들

이 겪는 고통 및 그를 바탕으로 한 치료적 개입 방안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과 마이데이 참석자들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트라우마 치유 과정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상 경험자들에게는 신뢰회복 및 안전감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치유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80년 5월 시민군으로 적극 참여한 사람 뿐 아니라 당시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부상자들의 트라우마 후유증은 어떠한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5·18기념재단 (2006).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실태 조사연구 보고서. 5·18 기념재단.
- 5·18기념재단 (2007). 5·18민주화유공자 생활실태 후유증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 5·18기념재단.
- 5·18기념재단 (2008).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부검 및 자살피해 예방 대책과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5·18기념재단.
- 강은숙 (2011). 저항집단의 생애사를 통해 본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과정 - 5·18시민군기동타격대의 '상처받은 5월 정신'.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국가인권위원회 (2011).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문요한 (2016). 광주아시아포럼. 5·18기념재단.
- 오수성, 신현균 (2008). 5·18피해자들의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스트레스, 심리건강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595-611.
- 오수성, 신현균, 조용범 (2006). 5·18피해자들의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59-75.
- 한홍구, 강은숙, 최현정, 오하린 (2012). 광주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 평화박물관.
- Agger, I., & Fernando, B. (2013). On testimonial therapy and the life project: What testimonial therapy does is try to bring private suffering into public and political spheres - an interview. *Torture: Asian and Global Perspectives*, 2(1): 5-13.
- Agger, I., & Jensen, S. B. (1990). Testimony as ritual and evidence in psychotherapy for political refuge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1), 115-130.
- Allan, S. & Mia, S. (2011). 고문생존자 상담지침 [Counseling for torture survivors]. (변주나 역). 서울: 현문사. (원전은 2003년에 출판).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psychiatric disorders (5th ed. text revision)*. Washington DC: APA.
- Chhim, S. (2013). A trauma-based cultural syndrome in Cambodia. *Medical Anthropology*, 32(2), 160-173.
- Danieli, Y. (1988). Treating survivors and children of survivors of the Nazi holocaust. In F. Ochberg, (ed), *Post-traumatic therapy and victims of violence*. New York: Brunner/Mazel.
- Fairbank, J. A., Schlenger, W. E., Caddell, J. M.,

- & Woods, M. G. (199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 B. Sutker & H. E. Adams (Eds.), *Comprehensive Handbook of Psychopathology*. New York: Plenum Press.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uquensne university press.
- Haden, S. C., Scarpa, A., Jones, R. T., & Ollendick, T. H. (2007).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injury: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for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7), 1187-1198.
- Herman, J. L. (2012). 트라우마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최현정 역). 파주: 열린책들. (원전은 1997년에 출판).
- Hurberman, M., & Miles,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California: Sage.
- Kolk, B. A. (2016). 몸은 기억한다 [Body keeps the score]. (제효영 역), 서울: 을유문화사. (원전은 2015년에 출판).
- Levi, P. (2014).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소영 역), 파주: 돌베개. (원작은 1986년에 출판).
- Lincoln, Y. L.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Lone, J. (2003). 고문생존자: 외상과 재활 [torture survivor: trauma and rehabilitation]. (변주나 역). 서울: 현문사. (원전은 1997년에 출판).
- Puvimanasinghe, S., & Price, I. (2010). *Healing through giving testimony: An empirical study with Sri Lankan torture survivors*(Unpublished BA honours thesis). University of New England, Armidale, New South Wales, Australia.
- Stevan, M. W., Alma, D. K., Ivan, P., & Robert, G. (1998). Testimony psychotherapy in Bosnia refugees: A pilot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12), 1720-1726.
- Stretch, R. H. (198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U.S. army reserve Vietnam and Vietnam-era vetera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6), 935-936.

논문 투고일 : 2017. 09. 03
1 차 심사일 : 2017. 09. 05
게재 확정일 : 2017. 11. 02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Victim's Life after May 18 1980 and the Experience of Testimony Therapy

Moonsun Kim

Gwangju buk-gu mental health center

Moonminseo Kang

Gwangju traumacenter

This study explores the aftermath of state violence and the meaning of its healing by analyzing testimony therapy designed to deal with trauma of the victims of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May 18”). In order to have a point of view that May 18 had catastrophic impacts on many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nd to observe the after-effects of such event to individuals’ lives,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estimony therapy sessions of four people who were tortured, arrested and detained after their participating in May 18 in 1980. The experiences of those participants with their testimony therapy and the interactions they had with the audience during the sessions made sure what are the key factors to healing the trauma from state violence. Nineteen topics were drawn from analyzing the statements made in the therapy process, and out of them, seven subjects below were chosen as the most significant; ‘repetitive pain’, ‘social and economic damage’, ‘isolation and disconnection’, ‘transition of suffering to other generations’, and ‘Safety’, ‘healing through connections’, ‘obligation as a survivor’.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rauma caused by state violence and made suggestions for healing such trauma.

Key words : May 18 democracy movement, trauma, testimony therapy, torture